

여름철 포유자돈의 폐사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양관리

서론

IMF 시대와 더불어 전염성 질병의 만연으로 양돈 사양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하고 있다. 더욱이 사료가격의 인상과 약품비등의 폭등은 사양가의 의욕을 상실케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역경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중돈의 품질균일화와 사료효율개선, 생산지표향상 등이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기술습득과 성실한 노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각오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양돈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 향상부문에서 교배기술과 사료관리를 통한 산자수와 생시체중이 중요하다. 이에 따른 분만사에서 포유자돈의 폐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여러 방법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PSY향상의 지름길이 된다. 일상적으로 분만사에서 주의깊게 관리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살펴해보겠다. 첫째로 생시체중이 800g이상 되어야 한다. 둘째로 생시자돈을 위한 보온통 구비등 보온시설이 완벽해야 한다. 셋



조 상 욱 원장
(중앙동물병원)

째 전 자돈이 골고루 초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넷째 분만을 구조에 따른 압사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 입질사료훈련에 따라 고품사료적응이 잘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료급여 프로그램에 의해 모돈체형이 적정해야 한다. 일곱째 위축돈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며 발생시 조기치료해야 한다. 등등의 필수관리에 충실한다면 건강한 자돈을 분만사에서 키워내 자돈사로 보내질 것이다.

본론

1. 포유모돈 관리

- 1) 분만사 입주전 암모늄계통의 소독액으로 몸전체에 약욕한다.
- 2) 분만예정 6주전, 3주전 소화기 백신 1, 2차 접종, 분만예정 4주전, 2주전 호흡기백신 1, 2차 접종
- 3) 분만사 입주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아침 일찍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 4) 분만사 내부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바닥에 톱밥이나 깔짚을 깔아주어 유방과 지체를 보호한다.
- 5) 입주후 내·외부 기생충을 구제하고 돈분이 유방이나

둔부에 오염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2. 포유자돈 관리

- 1) 보온통 내부온도가 32°C 이상되어 생시자돈의 양수가 완전히 마르도록한다.



▲포유자돈의 폐사 중 많은 부분의 부류가 바로 설사에 의해 탈수와 위축으로 인해 폐사되는 경우가 많다.

- 2) 양수가 완전히 마르면 절치, 단미, 단제등의 기본적 처치를 마치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포유시키도록 한다.
- 3) 3일령에 1차, 10일령에 2차 철분을 빠짐없이 실시한다.
- 4) 5일령시 입질을 바닥이나 모돈의 유방에 뿌려주고 자돈니빨을 점검해 본다.
- 5) 7일령 이내 거세를 실시한다.
- 6) 10일령시 위축자돈과 하

리발생이 시작되므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7) 10일령이 넘으면 자돈들이 성장이 빨라지고 젖싸움이 많아지므로 유즙이 모라지지 않게 모돈에 충분한 사료를 급여한다.

3. 분만사에서의 질병

1) 모돈의 식욕부진

- ① 유방염, 자궁염, 질염, 신장염, 위장염, 장염, 돈단독, 열사병 등 등이며, 난산후의 패혈증 증세를 나타내며 열이 오를때 항생제, 해열제, 소염제를 3일간 주사해 준다.
- ② 분만시 과도한 스트레스, 변비, 사료급여 미숙 등에서 오른 식체현상은 담즙분비효소제, 활력증강제를 2일간 주사하고 사료를 물에 섞어 연사급여한다.
- ③ 후구마비·관절 등에 의한 식욕부진은 치료효과가 떨어지므로 이유시까지 인공급여한 후 도태를 고려한다.

2) 자돈설사

- ① 조발성하리(5일령이내) 원인) 대장균에 의해 발생하고 초유를 섭취하지 못했거나 불결한 포유시 발생하며 과도한 탈수로 위축과 폐사가 다발

한다.

치료) 복강주사를 실시하고 모든에 유방염과 무유증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치료를 병행한다.

예방) 모든에 분만전 백신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분만시 보온과 초유급여를 충분히 한다.

② 지발성하리(3주하리)

원인) 주로 대장균이며 과식이나 분만돈사의 불결로 인해서 발생된다. 흰색과 회색설사를 보이며 폐사는 많지 않지만 성장정체가 된다.

치료) 자돈에 항생제를 주사하고, 모든에 질병유무를 확인한 후 즉시 치료한다. 분만사

내부를 건조하게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3) 글레서씨병

건강했던 자돈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폐사하거나 옆으로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폐니실린계 항생제와 소염제를 발생복 전체에 주사하면 발생이 없어진다.

맺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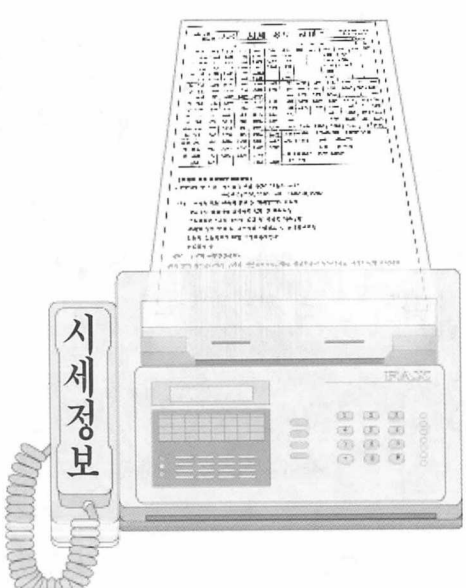
포유자돈의 폐사 중 많은 부분의 부류가 바로 설사에 의해 탈수와 위축으로 인해 폐사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설사를 근원부터 차단하여 건강한 자돈을 생산하려면 먼저 모든에 분만전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해 초유를 통해 설사를 발생케하는 원인균에 대해 면역을 획득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유체중과 관련한 사항이 대단히 중요한 사양기술이라고 언급하고 싶다. 일령에 따른 평균 체중이 있으므로 5.5kg이상된 개체를 이유하여 성장정체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養豚**



팩스 있으십니까?

한 장 받아보시지요.

- ❖ 매일의 전국 양돈 시세와 주요 속보뉴스가!
- ❖ 매일 오후 6시 당신의 팩스로... 대한양돈협회가 만듭니다.
- ❖ 매일 시세알아보는 전화요금보다 저렴한 이용료
(1년에 회원 4만원/비회원 9만원...)

☎ 문의처 대한양돈협회 지도부
02) 553-3942/6